

실용 자료(Authentic Materials)를 활용한 대학생들의 영어 읽기 지도

정 행
(호남대학교)

Jung, Haeng. 2005. Utilization of Authentic Materials in English Reading Classes for University Students.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3(1), 159-172.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model of English reading classes by utilizing authentic printed materials for Korean EFL university students. First, this study examines theoretical background and some benefits of using authentic materials for English learning through some literature review. Next, a model of teaching English reading through authentic printed materials to university students is suggested by demonstrating the way of selecting and organizing materials, developing reading activities, teaching reading methods, and training some reading strategies. For material selection, need analysis was conducted to 54 students who were enrolled for the English reading course before the classes. Reading activities were developed to involve the students in the processes of pre-reading, while-reading, and post-reading. An Interactive reading method was adopted and practiced as opposed to a top-down processing or a bottom-up processing. A check list of reading strategies including items not only for cognitive strategies but also meta cognitive strategies was developed and used to self-evaluate and monitor the students' own reading strategies.

주제어(Key Words): authentic materials, teaching reading, reading strategies, reading activities, reading materials

1. 서론

우리나라 대학에서 영어 읽기 지도의 목적은 주로 학생들이 기초교양이나 전공 서적을 읽어내는 데에 필요한 영어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에 있었고, 이를 위해 영어 읽기 과정에서 사용되는 교재는 대부분 다양한 여러

분야의 학문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정동수와 김해동(2001)의 대학 교양영어 과목 개선을 위한 연구에서도 보여주듯이 학생들은 교양 영어를 수강하는 동기에 대해 학문 생활을 위한 도구로서보다는 직장생활이나 문화생활에 필요한 도구로서 필요하다고 답하는 경우가 더 많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실용영어 사용 능력 강화를 영어교육의 주된 목표 중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학생들의 실용영어 사용능력은 말하기 듣기와 같은 구술언어에서 뿐만 아니라 읽기 쓰기와 같은 문자언어에 있어서도 필요하며, 대학에서의 영어 읽기 수업의 목표는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고 활용되는 영어 자료를 읽고 그것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을 갖추는 데에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학에서 영어 읽기 과정에서 사용되는 자료는 학문적인 내용 위주의 영어 읽기 자료에서 벗어나 실생활에서 접하고 사용하는 실용 자료(Authentic Materials)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다양한 목적으로 쓰여진 여러 가지 형식의 실용 자료를 접하고 글쓴이의 의도와 전체적인 요지 및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읽기 훈련을 통해 실제적인 영어 읽기 사용 능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대학에서 실용 자료를 활용하여 영어 읽기를 지도하는 수업모형을 제안하는 데에 있으며 이를 위해 수업전 학생들의 요구조사(Need Analysis)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흥미로워하는 실용 자료로 교재를 구성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학습활동을 통해 읽기 방법과 전략을 배우고 활용하게 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의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실용 자료 활용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고, 3장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 및 절차를 소개하며, 4장에서는 실용 자료를 활용한 수업 모형을 제안하고, 5장에서는 본 연구를 요약하고 그에 대한 제언을 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실용 자료(Authentic Materials)란 인위적인 자료(Artificial Materials)에 대조되는 용어로 실생활에서 활용되는 인위적인 손질을 가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자료들을 말한다(Brown, 2001). 전통적인 언어 교실에서 수업시

간에 보통 활용되는 자료는 교과서를 포함해서 교육과정에 따라 가르치기 위해 제작되고, 단원의 목표와 내용에 적합한 대화나 지문으로 적절하게 조정된 인위적인 자료들이 보통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언어교육에 총체언어이론적인 접근 (Whole Language Approach) 방법이 도입됨에 따라 언어는 언어 표현을 따로 떼어 내거나 쪼개지 말고 그 언어가 사용되는 상황이나 맥락에 포함시켜 총체적으로 가르칠 때 학습효과가 더 크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Carraquillo와 Hedley, 1993; Freeman과 Freeman, 1989; Goodman, 1986; McKenna, Robinson과 Miller, 1993; Watson, 1989; Weaver, 1990). 이러한 연구들은 수업시간에 제시하는 언어가 실생활에서 쓰이는 있는 그대로의 진짜언어 (Authentic language)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 따라 최근 영어교실에서는 수업자료로 신문이나 잡지, 광고 전단, 팸플렛, 상품 포장 문구, 카탈로그, 편지, 안내문, 쿠폰, 티켓 등의 실용 자료를 영어수업에 활용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다(Ahellal, 1990; Gebhard, 1996b; Melvin과 Stout, 1987). 이들은 인위적인 교과서 대신 실용 자료를 교실에서 사용해야 할 이유로서 몇 가지를 강조한다. 첫째 실용 자료의 활용은 학생들에게 쇼핑 등 일상생활이나 여행, 직장생활과 같은 실생활에서 영어가 사용되는 상황에서 소개되므로 영어를 배워야 할 동기를 분명하게 제시한다. 둘째 학생들은 실제 상황에서 사용되는 언어 표현을 통해 원어민들의 문화와 사고를 접하고 이해할 수 있다. 셋째, 학생들은 아주 형식적이고 딱딱한 어휘나 표현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구어체적인 어휘나 표현 등을 익힐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용 자료의 활용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영어에 대한 흥미를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계는 인터넷 사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구촌이 거의 하나가 되었고, 영어라는 매체를 사용해서 인터넷상에서 많은 정보를 서로 주고받거나 거래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우리는 거의 매일 인터넷에 올려진 많은 여러 가지 종류의 영어로 된 글들을 접하게 되고 이들을 읽고 이해해서 답을 보내는 등 적절한 의사소통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글들은 실생활에서 쓰이는 진짜언어를 포함한 실용 자료로서 대부분 광고문, 안내문, 그리고 여러 형식의 편지문들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영어 읽기 수업시간에 실용 자료들을 활용하여 읽기 연습을 충분히 해준다면 학생들은 다양한 읽기 방법과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실생활에서 이러한 영어로 된 실용문들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실용어휘와 표현, 형식에도 친해져서 전반적인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실용 자료를 활용한 영어 읽기 수업의 모형을 제안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흥미와 관심을 갖는 실용 자료를 선정하여 교재를 구성하고, 이들 실용 자료를 읽고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읽기 수업 활동을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이 실용어휘와 표현에 익숙해지고 다양한 읽기 기법과 전략을 사용하고 익히는 과정을 보여준다.

3.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호남대학교 인문대학 영어 강독 수강생 54명(남학생 21명, 여학생 33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강좌 시작 전 학생들에게 실시된 자기평가 식 설문 결과 학생들의 영어 사용능력은 대체로 중 하위 정도의 수준이었으며, 영어 읽기 능력 또한 중 하위 정도의 수준이었다. 영어 강독 수강 목적으로 학생들은 다양한 어휘와 표현 학습을 위해서(42%)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영어 읽기 방법과 전략을 배우기 위해서(35%)가 많았다. 학생들은 대체로 영어에 대한 지식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읽기 방법이나 전략을 사용하기 전에 우선 어휘와 표현을 모르는 것이 읽기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된다고 여기고 있었다. 또한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도는 비교적 낮은 편으로서 영어에 대한 흥미는 적지만 꼭 배워야한다고 답하는 학생이 많았고 (83%), 그 이유로는 직업을 구하는 데에(48%) 혹은 문화생활을 하는 데에(32%)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답하는 학생이 많았다.

3.2. 연구 절차

실용 자료를 활용한 읽기 수업 모형을 제안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진행되었다. 먼저 학생들에게 강좌 시작 전 설문지를 통하여 읽기 수업에 대한 요구조사를 실시하였고(Nunan, 1988),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에 부합되는 실용 자료를 선택하여 한 학기(15주) 동안의 읽기 교재를 구성하였다. 또한 수업은 1주에 75분 수업을 2회

하므로 그 시간에 다룰 수 있는 적절한 길이의 수업자료를 선택하였다.

다음 각 읽기 자료에 적절한 수업활동을 개발하였으며 읽기 과정에 따라 읽기 전 활동 (pre-reading activities), 읽기 중 활동 (while-reading activities), 읽기 후 활동(post-reading activities)으로 구분하여 학생들이 읽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학생들은 읽기 전 활동을 통해 읽을 내용이 나 주제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사전 지식을 활성화한다. 읽기 중 활동은 읽고 내용이해를 확인하기 위한 활동으로 구성되며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내용 이해에서부터 점점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해를 확인하게 된다. 읽기 후 활동은 읽은 자료를 읽고 이해하는 데에서 한걸음 나아가 읽기를 통해서 얻은 어휘나 문법을 비롯한 언어학적인 지식이나 문화적인 정보, 실용문의 형식 등을 비슷한 맥락의 실제 언어생활에서 창의적으로 응용하고 적용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학생들에게 자기 읽기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의 읽기 과정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읽기 방법과 전략을 깨닫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자료에 대한 읽기를 끝낸 후에는 읽기 방법과 전략에 대한 점검 표에 점검을 해보도록 요구하였다(Allan, 1995). 점검 표는 배경지식 활용, 맥락을 통한 단어 의미 짐작, 되풀이 읽기, 단어의 형태나 문장에서의 문법적인 관계에 대한 언어학적 지식 활용, 필요한 정보가 있는 부분 만 찾으며 읽기, 전체적인 내용 파악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 읽기, 실용문의 의도와 목적을 생각하며 읽기 등의 항목에 관해 스스로 점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4. 실용 자료를 활용한 읽기 수업 모형

4.1. 교재구성

많은 읽기자료 중에서 어떤 자료에 학생들이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강의 전에 실시한 요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은 신문 잡지 기사, 팸플릿 등 여행 안내책자, 광고 전단, 공고문, 편지, 시설이나 기관사용 설명서, 쇼핑 카탈로그 등의 순서로 선호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영어를 학문 생활을 위한 도구로서 보다는 직장생활이나 문화생활을 위한 도구로서 더 많이 배우고자 한다는 선행 연구결과 (정동수와 김해동, 2001)와도 일치를 보이고 있다.

학생들은 실용 자료 중에서도 신문이나 잡지에서 다루고 있는 시사적인 기사에 가장 관심이 많았다. 그 이유로는 정치, 재무, 문화, 최신 기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쏟아지는 기사들이 실제 자신들이 매일 매일 경험하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므로 내용이 친숙하여 흥미롭고 미처 접하지 못한 새로운 의견이나 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읽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영어로 된 기사를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친숙한 사건들이 어떻게 영어로 표현되는 가를 배울 수 있어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데에 좋은 입력(input)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격주로 신문 잡지 등의 기사와 그 밖의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실용 자료를 번갈아 활용하였다. 신문이나 잡지에서 한 주간의 관심을 끈 기사 중에서 분야별로 골라 읽기 자료로 채택하였으며, 다른 격주로는 여행 팸플렛, 광고 전단지, 사내 공고문, 편지, 시설 설명서, 쇼핑 카탈로그를 읽기 자료로 선정하였다.

4.2. 읽기 수업 활동

강사가 학생들의 읽기 과정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학생들이 읽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각 읽기 자료에 적절한 수업활동을 개발하였다. 수업활동은 읽기 과정에 따라 읽기 전 활동(pre-reading activities), 읽기 중 활동(while-reading activities), 읽기 후 활동(post-reading activities)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최근 읽기 학습에 있어서 학생들이 읽고 이해한 결과(product) 뿐만 아니라 과정(process)이 중요함을 주장한 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Anderson, 1999; Brown, 2001).

읽기 전 활동은 학생들이 자료를 읽기 전에 읽을 내용이나 주제에 대해 친숙하게 하기 위한 준비(warm-up)과정으로서 필요하다. 강사는 학생들에게 주제와 관련된 토론과제를 몇 가지 제시하거나 읽을 자료인 실용문이 갖는 특별한 형식이나 삽화, 문화적 특징 등을 보여주고 생각나 있는 것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게 하는 등의 영감을 불어넣는(brain storming) 활동을 활용함으로써 학습자가 갖는 사전 지식을 활성화한다. 예를 들어 쇼핑 카탈로그를 읽기 자료로 사용한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영어권 국가의 식료품가게나 백화점에서 물건을 산 경험이 있는가를 묻고, 무엇을 샀으며, 돈은 어떻게 지불했고, 어떤 문화적인 차이가 있었는가를 그룹 내에서 잠깐 이야기 하고 그룹별로 발표하도록 하였다.

읽기 중 활동은 읽고 내용이해를 확인하기 위한 활동으로 구성되며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내용 이해에서부터 점점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해를 확인하게 된다. 학생들에게 질문지를 나누어주고 조용히 정해진 시간 동안 글을 읽게 한 후에 질문지에 답하게 한다. 다음 그룹 활동을 통해 각자가 대충 적은 답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확인하게 한다. 학생들의 내용이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질문지 외에도 많은 다른 활동들이 활용되었다. 예를 들면 쇼핑 카탈로그의 경우에는 세일하는 물건과 평소가격, 세일 가격 등을 확인하고 정보전이(information transfer)하여 도표 완성하기, 여행안내 책자의 경우에는 단체 여행에 포함되는 관광지과 숙소를 날짜나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기, 시설 설명서의 경우 시설 설명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혹은 일치 하지 않은 내용이 섞여진 종이 카드를 몇 장씩 나누어 주고 내용에 맞지 않는 카드 골라내기, 편지나 공고문의 경우에는 읽고 글의 요지를 옆 사람에게 메모를 써서 전달하기 등의 수업활동을 만들어 활용하였다.

읽기 후 활동은 읽은 자료를 읽고 이해하는 데에서 한걸음 나아가 읽기를 통해서 얻은 어휘나 문법을 비롯한 언어학적인 지식이나 문화적인 정보, 실용문의 형식 등을 비슷한 맥락의 실제 언어생활에서 창의적으로 응용하고 적용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언어학적인 지식과 활용에 있어서 비교적 자신감이 없고, 요구조사결과 읽기 학습을 통해 어휘나 표현을 많이 알고 싶어 하므로, 연구자는 읽기 후 활동으로서 배운 단어나 표현 활용하여 문장 만들기, 빈칸에 적절한 문법적인 형태나 구문 채워 넣어 문장완성하기, 지문 읽고 어색하거나 잘못 쓰인 부분 고쳐 쓰기 등의 언어학 적인 지식을 강화하는 수업활동 들을 만들어 활용하였다. 또한 실용문의 형식에 익숙해지기 위해 광고문을 읽은 후에는 그룹별로 광고할 물건이나 장소를 정하고 실제 광고문을 작성하여 다른 그룹에게 소개하기, 편지문 읽고 답장 쓰기, 학교 시설 사용 설명서 작성하기 등의 수업활동을 활용하였다.

4.3. 읽기 방법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읽기 학습 방법에 대한 사전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학생들은 주로 자료를 읽고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있어서 어휘나 문법적인 표현과 같은 언어학 적인 지식을 가장 많이 활용해왔다. 따라서 읽어 가는 동안 모르는 단어에 부딪치거나 복잡한 문장구조를 만나면 의미 해석

하는 데에 힘이 든 다고 여겼다. 이것은 학생들이 읽기 방법에 있어서 글자나 소리를 통해 단어의 의미를 만들고 점점 더 큰 단위인 구, 그리고 나아가 단어나 구가 문법적으로 결합된 문장 단위로 확대 해석하고 이어서 보다 큰 단위인 담화 단위로 확대하며 의미 해석해 가는 아래에서 점점 위로 올라가는 전통적인 상향식(bottom-up) 접근 방식만을 주로 활용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Anderson, 1999).

그러나 이러한 상향식 접근 방식에 의한 의미 이해는 단순히 자료가 주는 정보(data-driven information)에만 의존하여 의미를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로서 의미해석에 있어서 읽는 사람 즉 독자가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이나 사전정보의 활용을 간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Smith(1971)와 Goodman(1976) 등의 학자들은 읽은 자료의 의미를 이해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독자의 스키마를 활성화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읽기의 성공도는 스키마의 활용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다. Goodman은 읽기를 심리언어학적 추측게임(psycholinguistic guessing game)이라 부르고 독자가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전체 내용을 짐작하고 이러한 내용과 연관하여 문장의 의미를 예견하거나 짐작해가면서 읽기 과정에 참여하고 점점 보다 세부적인 의미를 확인해가는 하향식(top-down) 읽기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읽기 과정에 관한 최근 연구들(Stanovich, 1980; Grabe, 1991)에서는 읽기 과정에 있어서 상향식이나 하향식의 어느 한 방향 보다는 상향식과 하향식을 통합한 상호작용적 접근 방식(interactive approach)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Stanovich는 읽기과정에서 상향식과 하향식 의미 해석이 엄격하게 아래에서 위로 혹은 위에서 아래로 한 방향으로만 연속해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서로 서로 어느 한 부분에 결함이 생기거나 막히면 보완하는 장치로서 병행해서 진행되고 상호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단어인식 능력이나 문법적인 지식의 부족으로 의미해석이 어려운 경우에 독자는 상향식 과정에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배경지식을 활용하는 하향식 과정을 통합하여 의미해석을 한다고 하였다. 또한 Grabe는 독자는 읽기과정에서 읽기 자료가 제공하는 활자정보를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머리 속에 들어있는 사전지식이나 경험, 세상에 관한 지식 등을 불러들임으로써 자료와 독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의미를 만들어 간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상향식 읽기 방법만을 사용해온 학생들에게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보다 타당한 방법으로 상향식과 하향식을 통합한 상호작용적 읽기 방법을 활용하도록 유도하였다. 실용 자료를 제공하고 읽어 가는 동안 단어와 복잡한 문장구조 때문에 어려움에 부딪치는 학생들에게 단어의 구조나 의미관계, 문장에서의 구성 성분과 기능, 문법적인 관계에 관한 언어학적인 사전 지식을 동원하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전체 주제와 관련된 배경지식을 활성화함으로써 전체내용을 짐작하고 실용 자료가 활용되는 의사소통적인 기능과 관련된 맥락 속에서 단어나 문장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학생들의 읽기방법을 알아내기 위해 필요하면 Alderson(2000)에서 소개된 읽으면서 생각한 것을 큰소리로 말하게 하기(think aloud)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

4.4. 읽기 전략

실용 자료를 읽고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학습되고 훈련되어야 할 것은 학생들에게 읽기 전략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읽기 전략은 학생들이 읽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있어서 사용되는 기법으로서 읽기라는 성공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수립하고 선택하는 작전이라고 할 수 있다. Hosenfeld(1977), Thompson(1987), Wenden과 Rubin(1987)은 읽기 전략을 인지학습전략(cognitive learning strategy)과 초인지 학습전략(metacognitive learning strategy)으로 구분하고 읽기 학습에 있어서 인지전략 뿐만 아니라 초인지 전략 사용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다. 또한 국내에서도 최근 Song (1999), Kim(2004)의 연구는 읽기 전략의 사용이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실시한 사전 조사결과에 의하면 학생들은 거의 읽기 전략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으며, 의미이해를 위해서는 주로 단어와 문법과 같은 언어학적인 지식만을 활용해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읽기 전략을 활용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여겼으며 인지 전략과 초인지 전략을 포함한 읽기 전략 훈련 방법의 하나로서 자신의 읽기 방법과 전략을 확인하는 점검 표를 활용하였다 (Allan, 1995).

학생들에게 자기 읽기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의 읽기 과정

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읽기 방법과 전략을 깨닫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자료에 대한 읽기를 끝낸 후에는 읽기 방법과 전략에 대한 점검 표에 점검을 해보도록 요구하였다. 점검 표는 배경지식 활용, 맥락을 통한 모르는 단어 의미 짐작, 모호한 부분 되풀이 하여 읽기, 단어의 형태와 구성에 관한 언어학적인 지식 활용, 문장에서의 문법적인 관계에 대한 언어학적 지식 활용, 필요한 정보가 있는 부분 만 찾으며 읽기, 전체적인 내용 파악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죽 훑어 읽기, 실용문의 의도와 목적을 생각하며 읽기 등의 항목에 관해 스스로 점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비교란에는 특별히 그것을 언제 왜 사용하였는지 간단히 적어두도록 하여 주어진 자료를 읽는데 자신이 사용한 전략에 대해 인식하고 그것이 효과적이었는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본 논문에서는 실용 자료를 활용한 대학생들의 읽기수업 모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먼저 실용 자료 활용의 이론적 배경으로서 실용 자료 수업이 주는 몇 가지 장점을 살펴보았다. 다음 실용 자료를 읽기수업에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대학 영어 강독 수강생 54명(남학생 21명, 여학생 33명)을 대상으로 한 학기(15주) 동안 수업을 실시하고 그 과정을 소개하였다. 읽기 수업 모형으로서 실용 자료를 선별하여 교재를 구성하고, 읽기 활동을 개발하고, 학생들의 읽기 방법을 개선하도록 도와주고, 학생들이 다양한 읽기 전략을 사용하도록 훈련하는 방법과 과정을 보여주었다.

교재구성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요구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학생들은 시사지에 가장 큰 관심을 보였다. 따라서 신문이나 잡지에서 한 주간의 관심을 끈 기사 중에서 분야별로 골라 격주로 읽기 자료로 채택하였으며, 다른 격주로는 여행 팸플렛, 광고 전단지, 사내 공고문, 편지, 시설 설명서, 쇼핑 카탈로그를 읽기 자료로 선정하였다. 읽기 활동으로는 읽기 과정에 따라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 활동으로 구분하여 수업활동을 개발하였다. 읽기 전 활동으로는 학생들이 읽을 내용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활동, 읽기 중 활동으로는 읽고 내용이해를 확인하는 활동, 읽기 후 활동으로는 배운 언어 지식을 강화하고 배운 표현

이나 실용문을 실생활에서 응용하고 창의적으로 사용하는 활동 중심으로 개발하였다. 한편 읽기 방법으로는 전통적인 상향식 읽기 방법만을 사용해 온 학생들에게 상향식과 하향식을 통합한 상호작용적 읽기 방법을 활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언어학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전 지식이나 배경지식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읽기 전략 훈련을 위해 전략 점검 표를 만들어 나누어주고 매주 주어진 자료를 읽은 후에는 자료를 읽어가는 과정에서 자신이 사용한 전략을 확인하고 어떤 전략을 왜, 언제 사용하였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초인지적인 전략도 활용하도록 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 제안된 실용 자료를 활용한 영어읽기 모형은 대학생들의 실용영어 능력 향상에 목표를 두고 실시되고 있는 많은 다른 영어 수업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현재 대학들에서는 학생들의 실용영어 사용 능력 향상을 위해 영어회화와 관련된 수업에서는 실용 자료를 보조 자료로 자주 사용하기도 하지만 읽기 관련 수업에서는 실용 자료를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대학들에서 영어 읽기 학습의 목적을 아직도 학업을 위해 필요한 전공서적을 읽어내는 능력을 기르는 데에 만 있다고 여기고 읽기 학습에 실용 자료를 활용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 것이고, 또한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여도 읽기 학습에 실용 자료를 활용한 구체적인 방안을 보여준 연구결과가 부족한 데에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실용영어를 활용한 읽기 수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실용 자료를 영어 학습에 활용한 많은 후속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특히 실용 자료를 읽기 학습에 활용하였을 때 학생들의 읽기 능력 향상이나 실용영어 사용 능력 향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학습효과를 보여주는 실험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정동수, 김해동(2001). 대학의 교양영어 과목 개선을 위한 연구. *영어교육*, 56(4), 265-292.
- Ahellal, M. (1990). Using authentic materials in the classroom: Theoretical

- assumptions and practical considerations. *English Teaching Forum*, 28, 37-39
- Alderson, J. C. (2000). *Assessing read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llan, A. I. C. G. (1995). Begging the questionnaire: Instrument effect on readers' responses to a self-report checklist. *Language Testing*, 12(2), 133-156.
- Anderson, N. (1999). *Exploring second language reading*. Boston, Heinle & Heinle.
- Brown, H. D. (2001). *Teaching by principles: An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2nd ed.). New York: Addison Wesley Longman.
- Carraquillo, A., & Hedley, C. (1993). *Whole Language and the bilingual learner*. Norwood, NJ: Ablex Publishing Company.
- Freeman, Y. S., & Freeman, D. E. (1989). Whole language approaches to writing with secondary ESL students. In D. Johnson & D. Roen (Eds.), *Richness in writing: Empowering ESL students* (pp. 177-193). New York: Longman.
- Gebhard, J. G. (1996b). EFL/ESL materials and media. In J. G. Gebhard (Ed.), *Teaching English as a foreign or second language* (pp. 89-111). Ann Arbor, MI: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Goodman, K. S. (1976). Reading: A psycholinguistic guessing game. In H. Singer, and R. B. Ruddell (Eds.), *Theoretical models and processes of reading* (2nd ed.) (pp.497-508). Newark, DE: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 Goodman, K. S. (1986). Is whole language restructuring our classroom? *Contemporary Education*, 62(2), 102-104.
- Grabe, W. (1991). Current development in second-language reading research. *TESOL Quarterly*, 25(3), 375-406.
- Hosenfeld, C. (1977). A preliminary investigation of the reading strategies of successful and unsuccessful second language learners, *System*, 5(2), 110-123.
- Kim, H. O. (2004). The role of reading strategies and beliefs in second language reading comprehension. *English Language Teaching*,

- 16(3), 79-108.
- McKenna, M. C., Robinson, R. D., & Miller, J. W. (1993). Whole language and research: The case for caution. In D. J. Leu & C. K. Kinser (Eds.), *Examining central issues in literacy research, theory, and practice: Forth-second yearbook of The National Reading Conference* (pp. 141-152). Chicago: National Reading Conference, Inc.
- Melvin, B. S., & Stout, D. F. (1987). Motivating language learners through authentic materials. In W. M. Rivers (Ed.), *Interactive language teaching* (pp. 44-56).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unan, D. (1988). *The learner-centered curriculu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mith, F. (1971). *Understanding reading*. New York, NY: Holt, Rinehart and Winston.
- Song, M. J. (1999). Reading strategies and second language reading ability: The magnitude of the relationship. *English Teaching*, 54(3), 73-95.
- Stanovich, K. E. (1980). Towards an interactive compensatory model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development of reading fluency. *Reading Research Quarterly*, 16(1), 32-71.
- Thomson, I. (1987). Memory in language learning. In A. Wenden & J. Rubin (Eds.), *Learner strategies in language learning* (pp. 43-56). London: Prentice Hall International.
- Watson, D. J. (1989). Defining and describing whole language.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90, 129-141.
- Weaver, C. (1990). *Understanding whole language: From principles to practice*. Portsmouth, NH: Heinemann.
- Wenden, A., & Rubin, J. (Eds.). (1987). *Learner strategies in language learning*. London: Prentice Hall International.

172 정 행

정행

506-714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봉동 59-1

호남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전화: (062)940-5523

이메일: hjung@honam.ac.kr

Received: 30 Dec, 2004

Accepted: 10 Mar, 2005